

“아무리 거친 강도 결국은 바다에 이른다”

잭 런던이 그린 사랑과 계급투쟁 「마틴 에덴」

어찌지 슬픈 종말을 예고하는 듯한 「마틴 에덴」은 작가 잭 런던의 문학적 소양을 가장 적나라하게 알아 볼 수 있는 작품으로서 그의 사회주의 소설 「강철 군화」에서는 맞출 수 없었던 인간적 갈등의 최고점을 낙천적이고 건강한 의미의 낭만적 배경과 계급투쟁이라는 딱딱한 사상적 대립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면적으로 부각시키면서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게 하고 있다. 미국 최고의 사회주의 작가라는 이름에서부터 자기 자신의 주위도 설명할 수 없는 모순 덩어리의 매문작가라는 이름까지 있을 만큼 잭 런던의 문학과 사상은 다양한 형태로 논의되고 있으며 그 논의는 아직도 그치지 않고 있다.

「마틴 에덴」의 줄거리는 간단하다. 계급적 편견을 갖고 있는 전형적인 부르주아 여성과 삶 자체가 도전인 열기왕성한 프롤레타리아 청년의 사랑이 이 글의 전부이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말했듯이 ‘사랑’과 ‘계급투쟁’이라는 두 주제는 그 어느 한쪽도 양보 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닌 까닭에 작가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이 문제들을 남녀간의 사랑이야기와 맞물려 전혀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조화로운 글솜씨를 보이고 있다. 잭 런던의 생애가 그러했듯이 이 글 속에 등장하는 ‘마틴’의 모습은 힘과 정열을 가진 건강하고 낙천적인 성격의 사회주의자이다.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강렬한 힘, 인간이 인간에게 느끼는 가장 순수한 감정으로서의 사랑, 그리고 결코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삶 전체에 대한 이성적 사랑으로 인한 사회주의적 사고, 그에 반하여 ‘마틴’의 사랑 ‘루스’는 지극히 나약한 부르주아 계급의 여성으로 슬픈 종말을 예고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주인공 ‘마틴’과 ‘루스’의 사랑은 인간의 인간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계급과 계급간의 뛰어넘을 수 없는 벽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결코 끊을 수 없는 강인한 힘으로 두 사람에게 작용하고 있다. ‘마틴’은 ‘루스’를 통해서 지식과 교양을 겸비한 부르주아 계급의 아름다움을 맛볼 수 있었고 그 부르주아 계급의 아름다움에 ‘마틴’은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 또한 ‘루스’는 ‘마틴’을 통하여 노동을 통한 인간의 강인함과 다소 무모하기까지 한 열정을 이해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끌림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잭 런던의 「마틴 에덴」이 갖는 가장 큰 묘미는 바로 여기에 있다. 인간이 인간에게 느끼는 가장 사적인 감정인 사랑이라는 감정에도 계급간의 갈등과 편견이 결코 무시될 수 없다는 점, 바로 이 점

이 이 글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가장 깊은 인상을 받게 하는 것이다. ‘마틴’은 그의 저버릴 수 없는 밑바닥 생활과 더욱더 동경해 마지않는 루스와 사랑, 마틴을 더욱 마틴답게(?) 만드는 주변상황의 표리부동함에서 오는 마틴 스스로의 자아찾기, 그로 말미암아 건딜 수 없는 갈등 속에서 스스로 삶을 마치게 된다. 뛰어넘을 수 없는 계급간의 현격한 격차 앞에서, 인간이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이라 말하는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 결국은 인간이기에 어찌할 수 없는 슬픈 종말을 예고하게 됨이 이 글 속에는 아주 잘 표현되어 있다.

성상희

서울 동작구 노량진 1동 117-21 24/8

「10년후 일본의 첨단기술시장」

「10년후 일본의 첨단기술시장」에는 무역, 기술마찰의 한가운데서 또다른 신기술에 의한 신 산업부문의 개발과 확장을 준비하는 일본의 모습이 담겨 있다. 저자 아오야기 다모쓰는 히다치 등에서 기술개발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과학전문 저널리스트라고 한다.

그러나, 과학전문의 책을 처음 읽는 나에게 다소 어려운 감도 있어서 같이 읽게 되었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미국이 두려워하는 일본의 첨단 기술」이라는 책이다. 「10년후 일본의 첨단기술 시장」은 CM비즈니스가 낸 책이고 「미국이 두려워 하는 일본의 첨단시장」은 도서출판 두레가 낸 책으로 둘다 일본인에 의해 쓰여진 책인데, 「10년후……」가 일본의 미래 시장전망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반해 「미국이……」는 초음파 모터, 퍼지컴퓨터, 전자선 홀로그래피 등 일본이 설정한 미래 기술전략 14가지를 출발부터 현재까지의 연구개발과정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이 둘을 짝을 맞춰 읽으며 일본인들이 자랑하는 산업능력의 실체라는 것과 시장점유력을 예견해 보는 것도 재미있었다.

「10년후 일본의 첨단 기술시장」은 특히 일본의 미래시장 전망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하이비전 산업, 소형기기를 지향하는 컴퓨터 시장, 위성통신 시스템 등 정보화시대의 첨단 기술시장 판도를 미리 알고 주도하기 위해 개발하는 일본의 예들이 여기서 소개된다.

환경위기에서도 기업과 일본정부는 시장창

출의 가능성을 잃어낸다.

환경에 대한 높아지는 위기의식 덕으로 폐기물 재이용기술, 이산화탄소 처리기술 등이 이른 시일 안에 각광받는 품목이되리라고 예측하고 있는 일본의 ‘무서운 아이들’로서의 모습이 이 책에 담겨 있다. 또한 일본 통산성은 태양광 발전, 새로운 발전 시스템, 전기저항 없는 초전도체 등의 개발에 적극적인 후원자로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여전히 일본에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 살림의 구조와 형편을 의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위기감을 느낄지도 모르는데, 나는 그것 또한 과학전쟁에서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기술의 이데올로기’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기술개발과 기술개발을 위한 전략싸움이 그만큼 냉철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학기술의 산업이 용이 과대하게 서술되어 있는 것은 국가가 과학기술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서는 채택되고 변형된 기술만이 생산된다는 점을 감추기 쉽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래서 이 책은 실용적이고 「W이론을 만들자」를 크게 유행시켰던, 신기술, 신정보에 약한 우리 경영인들에게는 더욱 실용적으로 읽힐 수 있지 않을까?

박재성

전남 서울 관악구 봉천 7동 247

「내 안에 쓰러진 억새꽃 하나」

우리가 꿈꾸는 건 무엇일까? 힘들게 나날을 살아가는 건, 고달픔을 견뎌내는 건, 정말 우리들의 삶이 아름답기 때문일까? 이런 질문을 수없이 되풀이하면서 살아나가는 게 인간인가 보다.

이봉환의 시집 「내 안에 쓰러진 억새꽃 하나」는 이런 고민을 왜 하게 되는가를 너무도 진실되게 보여주고 있다. 시집 전체에서 풍겨 나오는 파스한 인간미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연스레 그에 젖어들게 하는 맛이 있다. 요즘같이 봄날엔 더욱 그러하다. 날씨와는 상관없이 가슴에 드리우는 어두움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할 것 같다.

그의 시를 이해하기 위해 전체가 되어야 할 것은 그는 선생님이라는 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해직교사다. 시 전반에서 나타나는 어두움과 밝음에의 동경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하겠다. 가슴에 바람처럼 들어와 있는 억새꽃, 이와 대비대는 붉은 동백꽃.

1부에서는 개인의 서정이 구절구절에서 눈물을 만난다. 절망의 끝까지 가서 흘리는 눈물. 그러나 그는 통곡하지 않는다. 속으로 울음을 삼키고 있다. ‘단풍이 쓸려간 자리/그 아픈 흔적’을 지니고 자신에게 묻는다. ‘더운 피 얼마나 더 흘려야/우리 마을에도 아름다운 저녁이 오는가’고. 그러나 그는 낙관을 지니고 있다. 별빛, 달빛 사라져도 절망하지 않겠다는 의지는 환희 웃는 날, 꽃피는 날이 오기 때문이다.

2부에서는 자신의 어두울 수밖에 없는 현실 생활을 딛고 일어서고자 주위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린다. 이러한 시선은 간고한 우리네 역사로서의 붉은 동백꽃과 만나게 된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스런 삶을 인정하면서 여명을 기다리고 있다. 무작정 밝은 날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현실의 고통에 천착함으로써 얻어지는 희망이라 의미있는 것이 아닐까?

그의 개인적인 경험들은 3부에서 더 보편화시키고 있다. ‘내용은 껍질이 있어야 알차다는 걸 몰랐던/그때 뜨거웠던 시절’에서 ‘어머니의 노동이 아름다워질 때까지/죽도록 피터지게 싸우려고’하는 깊이 있는 삶의 변화된 모습이 보인다.

마지막 4부는 해직교사로 격어야 하는 생활의 어두움과 ‘전교조’라는 틀 속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내고 있는 건강하고 힘있는 목소리가 꽃을 피우고 있다.

이봉환 시인의 정서는 자신의 삶에 천착하므로써 보편성을 획득한다. 아름다운 삶의 변증법이라 하겠다. 낙관을 지닌 현실의 모대김은 인간을 살아있게 한다.

김병우

경기도 이천군 신둔면 수광2리 647

「나는 ‘장미의 이름’을 …」

이 책은 1932년 이탈리아 알렉산드리아 태생의 세계적인 기호학자이며 뛰어난 철학자이자 역사학자로 평가받고 있는 이탈리아 볼로냐대학의 교수 움베르토 에코의 저서로, 14세기 이탈리아 북부의 어느 수도원에서 금서를 둘러싼 7일 동안에 미궁속을 헤매는 윌리엄 수도사와 어린 독일수도사 아드소의 모험을 그린 자신의 소설 「장미의 이름」의 창작배경

과 평론가들의 잇따른 문제제기에 대한 작가 자신의 견해를 보여주고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언어의 천재'라는 자신의 명성만큼이나 짧은 분량의 지면에도 불구하고 「장미의 이름」이 책의 제목이 된 이유와 시간적으로 먼 '중세'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그에 따른 집필과정에서의 난제들, 그리고 특히 포스트모더니즘과 다른 문예사조의 변별점이 되고 있는 포스트모던한 표현방식과 작가, 텍스트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독자의 수용의 문제들 등 굵직 굵직한 문제들을 거침없이 다루고 있다. 따라서 난맥상대에 있는 국내 포스트모더니즘 논쟁의 현실에서 그의 책이 주는 의미는 크다 할 수 있는데 제목의 선택에서부터 독자들이 제목이 가져다 주는 유명론적 독해로부터 탈피하도록 하여 독해에서 독자와 작품간의 새로운 의미작용을 하도록 한 것이나, 흔히 세간에 포스트모더니즘 소설 이라고 불려지는 작품들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비일관적인 플롯의 구성과 달리 소설을 도시의 설계도와 같이 비유하면서 플롯의 일관성을 역설한 부분들은 그의 작품이 역사소설의 한 부류였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기에 앞서 국내에 포스트모더니즘에 관한 소개가 얼마나 단편적이고 자의적인 해석 속에서 이루어 졌는가를 실감케 한다. 아울러 예코 자신의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한 견해가 "공시적 관점에서 특정시대의 문예사조라는 것이 아니라 통시적 관점의 시대를 초월한 표현방식"이라는 진술은 대표적인 포스트모더니스트인 예코와 국내의 포스트모더니즘론자들 사이에 시각의 차이가 적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동안 리얼리즘과의 차별성을 언급하기에 급급했던 국내 포스트모더니즘 진영에서 내부의 생산적 논의와 교통정리의 필요성 또한 시사한다.

박계환

전남 여수시 예서동 경남APT 112동 1207호

「경마장의 오리나무」

수학은 불확실하다. 0을 무한히 더해도 0이 나오다면 처음의 0과 더한 결과인 0은 같은 0이란 말인가? 더하기라는 행위 자체가 무시될 수 있다는 것인가? 수많은 더하기의 끝에 0이 나오는 것을 알면서도 한번 더 더하기 행위를 하는 사람은 나는 용감한 사람이라 부르고 싶다. 무모함은 용감함의 다른 이름이므

로.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것은 '반복'이 될 것이다. 반복은 그 자체로 행복 혹은 불행의 표지가 될 수는 없다. 인간은 다양한 형태의 삶을 살고 있지만 모두 생존의 기본조건으로서 일상의 반복 속에 묶여 있다. 이 묶여 있음은 때론 단일한 충족감을 때론 거북한 불쾌감을 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반복은 지루하다.

「경마장의 오리나무」는 어느날 갑자기 도망가고 싶어진 '나'의 슬픈 용감성을, 그리고 결코 도망치지 않는 반복의 반복을 그야말로 반복적으로 그려내고 있는 소설이다. '나'는 하나의 세계에서, 그것도 반복적으로 맴돌다 도망치지만 그가 도망친 것은 하나의 세계이지 세계 자체는 아니었다. 다시말해 반복 자체는 아니었다. 도망치지 않음에도 도망하고 싶은, 그래서 도망치고야 마는 사람에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가? 세계에 대해 눈을 감기. 눈을 감은 맹인이 되기. 그리고 자신과 세계를 조용히 비웃기.

하나의 인간이 세계를 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고 해서 세계는 자신의 반복을 멈출 것인가? 도리어 세계에 눈감은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세계의 멈추지 않는 반복, 지치지 않는 지루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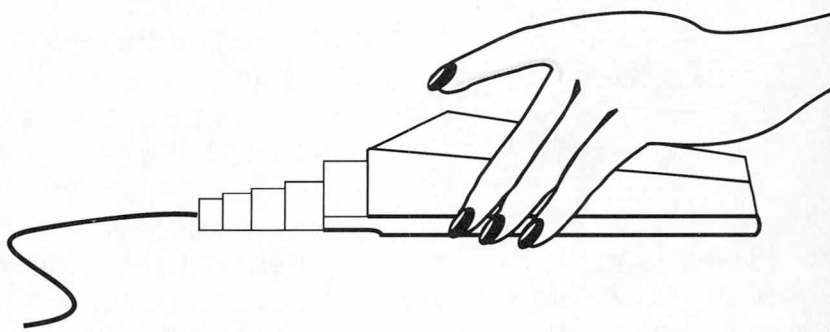
「경마장의 오리나무」는 두 가지 의미에서 슬프고 또 두가지 의미에서 용감한 소설이다. 하나는 소설 주인공 '나'의 이미 기술한 모습에서 그렇고 다른 하나는 그런 '나'를 그린 소설을 내놓는 행위에서 그렇다.

그런데 소설을 내놓는 행위는 분명 '나'의 눈감는 행위와는 다른 것이다. 전자가 '하는 것'이라면 후자는 '되는 것'이다. 하일지의 소설은 어느 한 행위에서가 아니라 두 행위의 차이에서야 비로소 의미가 획득되는 소설이다. '하일지의 소설'이 상징하는 바도 바로 이런 것이다. 우리 세계에서는 '의미있는 것'을 그려내는 데서가 아니라 의미없는 것을 '그려내는' 데서가 글쓰기의 의미가 가능하다는 하일지의 소설은 삶의 비일상 영역으로 가장된 상징화 영역으로서의 예술을 거부하고 있다. 그의 소설은 그래서 하나의 반대술이다.

장주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610-3호

“손금 안으로 강물을 흐르게 하지요”
“단순한 것은 섬세합니까”



모든 출력을 완벽하게 초고속으로 직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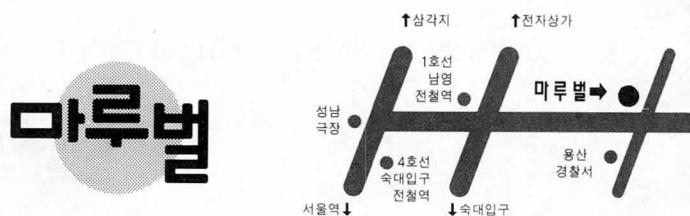
완벽한 서체 지원을 통한
출력 서비스 시스템을 갖춘
저희 마루벌에서는

사보·잡지·단행본 등 창간 혹은,
표지·본문디자인을 바꾸고자 하시는 업체,
기획·편집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루벌 가족은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루벌이 소중히 여기는 일들.....

- 디자인/표지·본문·광고·카드로그
- 편집/사보·잡지·단행본 진문
- 출력/매킨토시 출력
- 재판/원색·단색제판
- 제작/인쇄·코팅·제본

♣ 방문하시는 분께는 저희가 제작한 서체견본집을 드립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6 Tel:701-2391(대표) Fax:701-2395